

‘주말·휴일 비’ 7월 8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20~27℃
포항	20~27℃
여수	19~24℃
완주	20~25℃
수원	20~28℃
대구	20~26℃
대전	19~26℃
충청	19~27℃
부산	19~26℃
전남	19~27℃
전북	21~28℃
경북	19~28℃
경남	21~28℃

▲해돋이 05:25 ▲해질 19:50
▲달돋이 17:22 ▲달질 02:07

목포 밀물 <11:27 썰물 <05:26 여수 밀물 <06:30 썰물 <00:56
17:07 19:34 12:31

날씨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5	21/26	22/27	22/29	22/30	22/30

■ ‘날씨 도우미’ 광주 기상청 기상민원 상담사 김문용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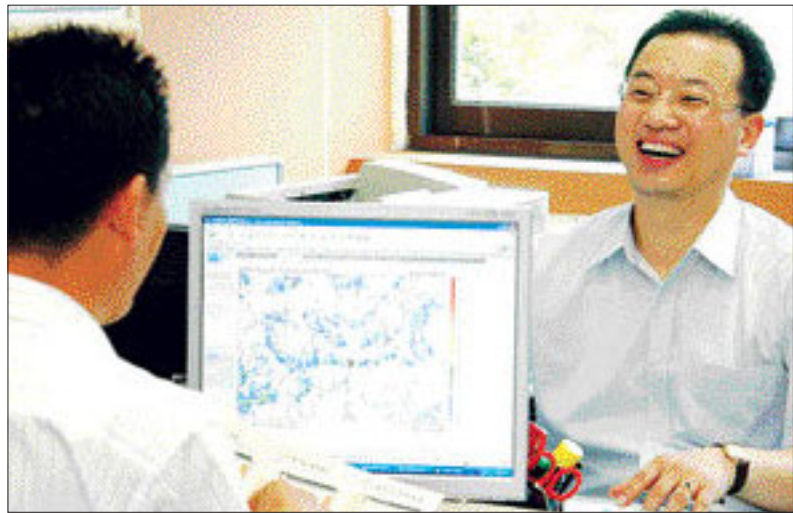
“날씨 재해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지난 4일, 화순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30대 아주머니가 광주지방기상청 민원실을 찾았다. 지난 1일 새벽 전기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 축사에 설치된 ‘공기 공급 팬’이 멈추는 바람에 수백 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질식사했다는 것. 갑작스럽게 쏟아진 장대비와 천둥·번개 때문에 전기가 끊긴 것 같지만,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기상 민원상담사 김문용(34)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추사와 가장 가



빠곡히 채워진 기상민원 접수 대장. 울들어서만 505건을 처리했다.

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민원실을 떠났다.
이렇듯 김씨는 날씨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처리해준다. 비가 많이 내리



광주지방기상청 민원실에서 김문용(오른쪽)씨가 민원인에게 상담을 하고 있다. 민원인은 상담내용을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천둥·번개로 돼지 죽었는데 증명할 길 없나?

축사 현장 기상 정보 체크... 피해 입증 도움 줘

가운 곳의 기상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떼왔다. ‘1일 하루 동안 20mm의 비가 내렸고, 낮 12시 06분 초속 11.3m의 돌풍이 불었으며 30일 낮 12시 30분부터 20여분 동안 천둥·번개가 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린 시간은 10분 남짓. 비용은 표지 값 500원에, A4용지 한 장당 200원씩이다. 아주머니는 “농협 가축공제보험에 들어왔는데, 이 증명을 내보이면 얼마만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 같다”

공사가 늦어졌다는 증명을 떼준다는 것.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물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에피소드도 많다. 그는 특히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한 아주머니의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한 아주머니가 목포에서 찾아오셨어요. 지난해 12월 광주로 오는 길에 운전중 하도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사고를 냈다고 했죠. 상

대 차 운전사의 치료비도 많이 나왔는데, 범칙금이 200만원 넘게 나왔다고도 말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당일 눈이 얼마나 왔는지 증명서를 떼 드렸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홍도에서 타고 자란 그에게 날씨에 절대적이다. 어릴 적 작은 배를 타고 매일 바다에 나가는 아버지 걱정에서 일기예보를 하루 종일 끼고 살았다. 그는 지난 96년 결국 흑산도 기상대에 입사했고, 기상 민원을 담당하는 지는 5년이 됐다.
김씨와 같은 기상 민원 상담사는 광주·전남에서만 10명이 활동하고 있

다.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938년 문을 연 이래로 68년째 기상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에선 지난 2003년 1천511건, 2004년 666건, 2005년 832건의 기상 민원을 처리했다. 올해는 1월 145건, 2월 125건 등 지금까지 모두 505건이 접수됐다.
김씨는 “날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증명이 필요할 때는 꼭 민원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62) 519-0417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침 (6873) 김창두



연예자 동림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만
문의 (062) 366-4220

히로봉 유통 5명 검거 전남경찰청·순천경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봉)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도(49·김해시)씨 등 2명을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9월 초 부산 사직야구장 앞에서 메스암페타민 2.36g을 200만원에 구입해 장모(42)씨 등 7명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서씨 등은 또 지난 2월 중국에서 시알리스(발기촉진제) 1천여정을 택배로 들여온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순천경찰도 이날 메스암페타민을 매대하고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37·서울시)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순천시 매곡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박모(45)씨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받고 히로봉 50g을 판매한 혐의다.
/서민정·김진수기자 viola@kwangju.co.kr

성인오락 게임 공급 기업형 체인점 적발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종기)는 7일 불법 성인오락게임을 공급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공급업체 A사 대표 조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 경매게임을 제작, A사의 전국 각 체인점에 공급하고 서버관리를 대행해 수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실업 대표 함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담배판 돈 5,000만원 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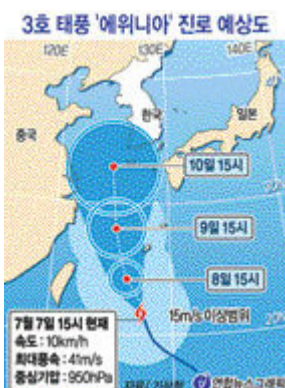
쌍다발

○광주의 한 공기업이 물품대금 5천만 원을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7일 광주 공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KT&G 서광주점 사무실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천800만원과 10만원 권 수표 20장 등 모두 5천만원의 물품대금이 사라진 것을 직원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평소 금고관리를 맡아보던 직원 고모(44·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가 도난사건 이후 행방을 감춘 점에 주목, 고씨의 행방을 추적.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태풍 ‘에위니아’ 북상

광주·전남 내일 오후 간접 영향권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오후부터 제주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7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은 9일 오후 늦게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에위니아’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540km 부근해상에서 시속 10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10일에는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hPa)인 ‘중형급’으로, 태풍 중심에서 440km 떨어진 곳에서도 초속 15m(시속 54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태풍 중심 부근에는 초속 41m(시속 148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8~1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8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광주·전남에 10~30mm의 비가 쏟아진다. 이번 비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김상현 전 의원 “생활비 받았다”

기획부동산 ‘대부’ 김현재씨에 10억 수수

기획부동산 업계 ‘대부’ 김현재(구속·삼흥그룹 회장)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7일 김상현(사진) 전 민주당 의원이 김씨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계차 추적을 통해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후농(後農)문화재단’ 또는 일부 차명계좌를 통해 김씨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후농’은 김 전 의원의 아호(雅號)로, 김씨가 삼일교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과 지난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을 소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 전 의원은 “순수하게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할 때 받은 수익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의원이 받은 돈 일부가 다른 정치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혐의가 밝혀지면 이른바 다음중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뺏기고 착취당한 ‘섬 노예 장애인들’ 구제 5일만에 노예생활 ‘리턴’

전남 인권단체 구제방안 촉구

섬에 갇혀 노예같은 생활을 한 장애인들이 인권단체에 의해 구제됐지만, 노동력을 착취한 공장 사장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섬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소장 허주현)는 7일 목포시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 및 구제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섬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신안군 암태도의 김가공공장인 S수산에서 일하고 있는 S(65·정신지체 1급)씨와 부인 L(42·정신지체 2급)씨, H(42·지체장애 5급)씨 등 3명은 10년이 넘게 일했지만, 임금받기는 커녕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착취당했다.
S씨 등은 지난 5월 18일 인권단체에 의해 구제됐지만, 5일 뒤 다시 S수산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들은 밀린 임금 지급과 아파트, 배등을 사주겠다는 S수산의 ‘회유’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그러나 S씨 등이 현재 보일러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여전히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김수연 인권센터장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을 볼취할 만한 곳이 없어 이들은 다시 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성년후견인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SBS 시사프로그램인 ‘긴급출동! SOS 24’는 최근 ‘노예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섬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상을 방영, 시청자들이 크게 분개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포사격장 주민피해 국가배상 첫 인정”

장성·담양주민 승소 광주지법 판결

군부대 전차포 사격장의 소음과 파편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는 군부대 포사격장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7일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지역 10여개 마을 주민 150명이 인근 군부대 전차포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제기한 마을 중 군부대 포사격장 인근에 위치한 진원면 화동·양유·삼림 등 3개 마을 80여명의 주민들은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들에게 1인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을 받지 못한 마을도 소음이나 파편 등의 피해가 전혀 없지 않으나, 비교적 사격장과 거리가 멀고 피해정도도 기준치 이하로 나와 군현리라는 고도의 공공 이익을 해할 만큼의 피해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고영석 주심판사는 “군항공기 피해 관련 재판은 과거 있었으나 전차포로 인한 피해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병사 훈련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놓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장성 육군 전차부대 포사격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포탄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주민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日 반출 ‘조선왕조실록’ 고국품에

일본 도쿄대학에 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史庫本)이 7일 오후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 도착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화물상자를 운반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47책은 이날 컨테이너박스 내 제출 장치된 나무상자에 담겨 2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이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며 화물청사에서 통관절차를 마친 뒤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서울대는 도쿄대 측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13일 개봉 절차를 거쳐 14일 오전 11시께 서울대 규장각에서 환수 기념식을 열어 조선왕조실록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대 환수위원장인 이태수 대학원장은 이날 “조선왕조실록은 원래 12일께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통관절차가 앞당겨지면서 오늘 옮겨졌다”며 “그러나 환수 예정일 전까지는 소유권이 도쿄대에 있으므로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 없이 보관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